

Sister 전도법으로 부흥하는 예수마음교회

예수마음교회는 2014년 6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김성기 목사는 한국교회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14년간 연구한 SISTER전도법을 토대로 교회와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소를 통하여 지속적인 전도, 양육연구, 세미나와 어린이 청소년 전도훈련 4주 교육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마음교회는 매년 100명 이상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전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현장에 나아가 전도하고 있으며 현재 300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의 비결은 김성기목사의 개인전도 활동과 전도된 어린이, 청소년들이 친구 전도입니다. SISTER 전도법으로는 3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앞 전도, 매월 마지막 주 초청잔치, 축구 및 피구를 통한 스포츠전도, 토요전도, 제자교육, 전도상시상, 전화심방 등이며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포츠전도

영등포지방 풋살, 피구대회 : 매년 참석하여 부흥 (예수마음교회 2016년 70명 참여)



매월 마지막 주 친구초청잔치

인천 영락교회 청년부와 함께하는 ——

제1회 예수마음 어린이.청소년 여름축제

페북스타 정광자, 무명가수초청, 악기연주, 희망특강
닭강정, 피자파티, 레크레이션, 축구, 피구

★ 일시 : 8월 6일 (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 장소 : 예수마음교회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좌측 30m)

Mobile, 010-4766-7166



2016년 도신초등학교 6학년 떡볶이, 슬러시 전도로 30명 등록
일주일에는 2번씩 학교 앞 전도와 토요전도를 하면 크게 부흥

학습선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4시 제자교육

매주 주일 오후 2시반 청소년 영어,수학 교실

절기가 있는 달에는 크게 잔치를 하고 일반적인 달에는 피자파티로 부흥

토요전도



토요일 오후 동네를 두바퀴 돌며 어린이 청소년들을 만나 교회오라 권면한다.
함께 놀아주고 먹을 것을 나누며 말씀 암송을 하게 한다
친해진 어린이들을 교회 예배실로 안내해 교회를 소개한다.

SISTER 전도법

2002년 대림감리교회 아동부 280명이 전도되어
90명⇒180명 배가출석부흥에 6가지 방법이 사용되어짐

Sports (스포츠전도) **Invitation** (매월 총출석, 친구초청예배)
School (학교앞전도) **Telephone** (토요일 전화심방)
Education (제자교육, 학습선교) **Reward** (전도상 시상)

이 방법으로 중고등부 70⇒240명 출석부흥(재적100⇒1000명)
만수중앙교회 청년부, 예수마음교회 장년부, 30여 교회 컨설팅부흥.
전도자(누나)가 전도대상자(동생)와 함께
놀이 음식을 나누며 가르치는 사랑, 돌봄의 전도법

Sports(스포츠전도)

- 놀이체육 개인전도 • 축구, 농구, 피구단 조직
- 주경, 코치, 감독세우기 • 지병별 친선경기 •
- 전국대회출전 • 유명주별골닷컴성

토요일 놀이마당 :
장동 10개 스포츠드리, 인솔놀이,
풋살, 피구, 줄넘기, 훌라우트, 동전던지기.

영동초저항 피구
속구권국대체 우승
(중앙교회 고등부)
영동초저항 11개 교회
210명 어린이 참가

Invitation (매월총출석, 친구초청예배)

- 줄다리기 (학생, 교사, 사제, 학생) 2주간 초청광고

초청합니다
피자파티, 피망독강, 무명가수초청
일시: 2015.11.15 일요일 오전 1시
장소: 예수마음교회 (제주센터)

인형극, 버블쇼, 가독매직, 연극, 간증 등 분기별 초청행사

문화순회 선교단 *

버블쇼 (영동초교)
인형극 (포수아목사)
가독매직 (표석은장로)

School(학교앞전도)

어느새 하는 마저레, 마이클유저레, 친구되기
• 주 2회 전도: 사역자, 교사, 학생

줄넘기, 훌라우트, 태니스 등
단지로 받기로 친해지기

마아출, 베타출, 솔라워, 성경 1절 회무기

• 할머니, 할아버지 한사람 전도자로 세우기 •

풋살, 피구, 농구, 증정단, 연극부 모임

대림교회 14개 초, 중, 고등학교 동학교길 전도

김성기 목사
로고스 할머니
유래인 목사

개인전도법

친해지기
1 인사
2 함께운동
3 먹을것나누기
* 예수님의 사계오 전도(눅19)

⇒

교회로 초대
1 평일
2 토요일
3 주일예배

⇒

제자교육

⇒

전도자 일꾼세우기

전도를 잘하려면

기도로 성령충만, 성경으로 말씀충만,
예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함으로 사랑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인생의 목적(막1:38)을 전도에 두고
전도의 목표를 크게 가지며 무디처럼
매일 전도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협력전도하면 (막2) 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수 있습니다.

SISTER/J.D 교회학교성장연구소, 스포츠선교연구소장 김성기목사

Telephone (토요일 전화심방)

- 출석부 보고 자주 걸리는 학생 전화
- 전도 대상자 토요일 전화
- 초청전지 예배 전화

문자로 말씀 메시지 보내기

늦게는 학생을 위한 오후예배 권면

- 전도후(후장)에게 격려 전화

Education (교육선교)

제너 교육을 위한 부모 초청 특강
전도 현장에서 성경1구절 암송
연극, 찬양, 독서부흥을 통한 교육
스포츠 활동중 기독교 5문 암송

학습 선교

토요일 성경 공부 독기 노민 돕기
영화관람을 통한 교육

주일 예배, 본반 공부

비전별 동아리모임과 멘토교사 세우기

세계 교육 리더 교육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밴드 모임

이로써 우리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져
가서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막1:38)

Reward (전도상 시상)

대림교회 안수금학생
매년 20명 4년간 전도

텐텐 전도 클럽
소리소리 전도 클럽

6학년, 30 20명 출석
고기 파티

성탄절 전도상 시상

전반기 하반기 전도자, 전도원자
문화상품권 시상

출석, 전도 스티커
20장 붙이기 시상

하나님이 사랑을 미처할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함이라 (로 5:16)

3

영등포 지방 성림교회 전도이야기

할렐루야 !

저는 서울남연회 영등포지방 성림교회 담임목사 차상민입니다.

본부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전도시상에 이 글을 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성림교회는 제가 부임한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부임 때 저희가족과 장로님 부부, 권사님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노라 말씀드렸고 그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저의 조금함의 결과로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처음 영국문화원과 함께 축구교실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진행상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작지만 매우 중요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의 대화중 이 시대와 지역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발견했고 함께 이일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 대림동 신길동 지역은 40년 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맞벌이 사이에서 경제적(학원비, 양육비)으로 또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그러한 의견을 모아 해결하고자 학부모님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며 양육하는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4가지 중점 프로그램

1. 어린이영어

유치부 아이들의 경우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고민하다 파닉스를 어머니들이 진행하는 공동육아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 컴퓨터교실

2018년부터 초등학교 정식과목이 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코딩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우기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교회차원에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여 진행 중입니다.

3. 어린이 축구교실

초등학교 1,2학년에 체육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사교육과 방과 후에 체육을 떠넘긴 공교육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정서발달과 지적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축구교실을 만들어 진행 중입니다.

4. 미술놀이, 음악놀이

치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미술놀이와 음악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진행은 저희사모(상담심리대학원, 음악치료 대학원) 및 청소년 상담사이신 권사님께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5. 어머니회

요즘 대부분 1.2명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맞벌이까지 하면서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릴적 생각해보면 교회는 아이들에게 예배당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교회의 문턱을 넘고 스스럼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일하며 양육정보 등을 나누는 장을 마련해 주고자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인 위드맘을 개설하고 지역의 어머니들과 함께 지역변화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져 정보를 공유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중입니다.

현재 눈에 띄는 정도의 부흥은 이루지 못했지만 부모님들이 같이 전도된 것이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작은교회의 큰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진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나눌 의지가 있으며 저희의 시행착오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일 성경공부 및 만들기



영등포지방 어린이잔치 유치부축구



영등포지방 어린이 잔치 유치부축구 특별팀 구성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미술놀이 및 음악놀이)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미술놀이 및 음악놀이)



어머니 영어교실

유치부, 아동부 코딩교실



유치부, 어린이 코딩 수업



주일 유치부모습

유치부가 부흥되는 철원 성은교회 전도이야기

제목 : 유치부 부흥 사례

교회 : 성은교회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로 166번길 26)

성명 : 임영진(권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6.25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강원도 철원입니다. 끊어진 금강산 철길, 포탄으로 얼룩진 노동당 청사가 민족의 아픔을 지금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친환경 농촌 청정지역으로 철원 오대미로 유명한 곳, 철새도래지로 두루미를 상징하듯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 곡식을 심고 가을이면 황금들녘을 이루는 농심 속에 자연의 이치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여느 농촌에도 그러하듯이 젊은 층이 빈약하고 도시를 찾아 떠난 빈자리에는 노년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시골의 모습은 이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성은교회는 강원도 철원군 와수리에 소재한 리 단위 소재의 교회입니다.

지난해까지 저는 아동부부장으로 봉사하였으나 올해에는 유치부부장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의 아이가 전부인 유치부, 하지만 어떻게 유아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제목을 정하여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출석 3명의 유치부원들이 30명이 되는 부흥을 목표로 기도하였습니다. 유치부 부흥은 부모와 연계되어 2~30대 젊은 층의 교회 유입을 위한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유치부의 경우 부모님과 소통이 중요하므로 주중에는 아이들 뿐 아니라 일일이 부모님들과의 전화 심방으로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주일 아침 자녀를 데려다주는 유치부 부모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하고 자녀를 꼭 안아주는 일과 손을 잡거나 품에 안고 예배실로 향하는 일은 신뢰와 사랑의 일환으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3명의 어린이로부터 시작한 유치부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35명으로 늘어났고 불과 1년 만에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면서, 30명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의 손을 놓지 않으며 때를 쓰던 아이들, 예배 시간 내내 울어대던 아이들로 인하여 어수선했던 예배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율동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유치부 예배시간도 주일오전 11시 대예배 시간과 함께 진행되어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부에 맡겨두고 주일 대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활동이나 교육내용은 교재를 중심으로 찬양과 율동, 그리기 등 다양한 예능 활동과 놀이로 주중에 청년부와 중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교사들과 함께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4월과 10월 총력전도 주일아침에는 교회현관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이 특별한 의상으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찬양율동을 하여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 기간에는 대형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벤트 행사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점심 식탁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매주 애찬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달려오는 가운데, 유치부가 놀랍게 부흥되어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유아부실이 협소하여 예배 진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유아부실 공간으로는 교사를 포함한 최소한 50여명이 함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담임목사님께서 임원회의를 열어 유치부실 증축을 결의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관 내에 유치부실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용 유치부실이 만들어지고, 각종 지원이 차고 넘쳐서 유치부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치부가 부흥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담임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치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과 헌신으로 봉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새벽 기도시간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35명의 아이들을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 유치부에게 더욱 큰 꿈을 꾸게하시고 비전을 이루시며 더 큰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유치부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시너지가 되리라는 생각으로 더욱 힘써 봉사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 유치부현황

1. 교사

부장 : 임영진(권사)

교사 : 최정숙(집사), 김미선(청년), 박서영(청년), 정지우(학생), 신유라(학생), 이다빈(학생),

김예은(학생), 이윤서(학생),

보조 : 이요섭(청년), 김길언(청년), 박영균(학생), 이수호(학생)

2. 유치부

정승우, 도단아, 도준수, 김민서, 김다훈, 윤소연, 윤다연, 권민서, 김지용, 김지성, 김하준, 김하윤, 신설아, 김예율, 허아민, 허아진, 허아준, 허아인, 소은률, 소은성, 노시완, 노시은, 윤태호, 윤태윤, 김나은, 김례은, 김리나, 윤하은, 윤하경, 김준수, 성유나, 장시윤, 이솔이, 김승민, 김태민, 김유빈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영종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영온교회

-영온문화탐험대(전 그린문화탐험대)-

이 시대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대현화된 교회들 속에서 작은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을 갖고 복음과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접목한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 “그린문화탐험대”였습니다.

2013년 9월 영종하늘도시의 구도심 전소라는 마을(중부연회 인천서지방)에 개척을 한 후 지역을 조사하며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주 5일째 근무가 보편화되고 주말에는 가족나들이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들이 토요일에 일을 하고 심지어 주일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주말에 집에 있게 되고 차가 없으면, 즉 어른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동이 어려운 이 지역 특성상 문화생활이나 놀이체험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아, 이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에 뭔가를 해보자!’

1. 그린문화탐험대의 시작

막상 토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형교회들은 재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개인 부담이 별로 없고, 차량과 식사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만, 이제 막 개척한 상가 3층의 약하기 그지없는 비전교회가, 장년성도 한 명 없이 어린이만 5명인 교회가 체험활동을 시작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홍보부터 사전 준비와 진행, 도시락 등 모든 것을 담임자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획은 마쳤으나 엔진은 가동하지 못하고 있을 무렵, 같은 지방의 00교회와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1년차 영온교회와 개척 2년차 00교회와의 연합.

무언가 하고 싶지만 일손이 없어 두려워만 하고 있던 비전교회 두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회의를 하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2014년 4월 ‘그린문화탐험대’ 1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 그린문화탐험대의 여정

학교에서 학원으로 끊임없는 교육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연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체험활동이 또 다른 사교육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가장 저렴하면서도 알찬 박물관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동네 뒷산 등반하기, 경인 아라뱃길 마라톤, 숲에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등 누구나 해 볼 수 있는, 그저 돈에 곳곳을 뛰어놀며 무료 박물관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하며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전단지에 사탕을 붙여 나눠주고, 버스정류장마다 홍보지를 붙이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도지 천 장을 돌려도 전화 한 통은커녕 싫은 내색만 잔뜩 받았는데, 이 번에는 문의가 줄을 잇고 신청자들까지 생긴 것입니다. 1기 때는 혹시나 10회 회비를 일시불로 내라면 신청자가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매회 만원씩 회비를 따로 받았는데, 2기 때부터는 아예 선착순 마감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부모들과 아이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2기는 ‘책과 함께 떠나는 가을 소풍’을 주제로 좋은 책을 선택하여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을 가고, 클레이로 나만의 공을 만들고 오븐 7대를 빌려 수제 쿠키굽기를 하고 옷상에서 천연염색을 하여 스텐실로 나만의 가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작품은 그냥 집으로 돌려 보내기가 아쉬워 동네 작은 공원에서 전시회와 함께 음악회를 열었더니 모두가 함께 즐기는 동네 잔치가 되었습니다. 물감으로 가방에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한 어린이에게 공감하고 칭찬하니 실수한 그림이 변하여 해쳐 잠수함으로 변신하기도 했고, 스탬프 찍기를 이용하여 자기 만의 동화책 만드는 활동에서는 아이들은 저마다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새의 마음을, 꽃의 마음을, 구름의 마음을 적어 놓습니다. 그것이 자기 내면과의 깊은 대화라는 거창한 말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하호호 웃고 떠들며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형을 알아가고 회복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교회가 함께하기에 가능했던 이 모든 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두 목사는 토요일 새벽이면 40여명분의 도시락을 직접싸고 최소한의 간식을 준비하고...

그 마음이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2기 후반부터는 대형버스를 빌려야 할 만큼 아이들이 많아졌고, 3기부터는 교회별로 준비할 수 있는 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린문화탐험대 4기는 나의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찾아보며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그 일을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디자인 전시회를 찾아가 작가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며 감상하고, 화가를 만나 함께 그림도 그리고, 경찰서도 방문하고, 법원을 찾아가 판사와 검사 변호사와의 대화시간, 목사님을 만나 꿈을 키워도 보고 머릿속에 이미지로

만 댐도는 허상의 꿈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꿈을 찾기 위해 탐험길에 올라도 보았습니다.

현재는 영온문화탐험대로 이름을 바꾸어 교회와 복음으로의 초대의 정체성을 밝히며 5기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믿고 자녀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가정들도 있어 현재는 5가정, 교회학교 20여명의 어린이들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개척 후 3년 반이 지난 지금 교회가 너무 좁아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고, 학교 앞에서의 끊임없는 전도와 체험활동으로 영온교회가 알려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에 유용한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일할 동역자가 없어 움츠리며 고민하고 있을 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지금 해 보자...

내가 제일 잘 하는 것을 하자 생각하다보니 아이들과 함께 놀고 밥 먹는 일...

그 일을 신나게 하다보니 영종지역에서 그린문화탐험대로 자리잡게 되고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린문화탐험대가 제일 재미있어요. 영온교회가 제일 재미 있어요. 일주일이 백 년 같았어요” 아이들은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3. 그린문화탐험대 프로그램들



4기

내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린(Green) 문화탐험대 모집

꿈이 되면 세상의 모든 생령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만의 색과 모양으로 피어납니다. 아이들은 꿈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피어나고 싶어합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왕조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생명의 길에 조금이라도 안내자가 되고 싶습니다. 삶의 산생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보며 우리의 꿈을 새롭게 꾸어보려 합니다. 4기 그린문화탐험대에서는 내 꿈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20년 후의 내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책도 써 볼 것입니다. 아이들 안에 있는 창조의 본성으로 꿈을 찾는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직업모델 & 강사	프로그램	장소
4월 23일	술술디자인 (김하나)	• 스탬프아트 전시회 • 디자인의 세계	서울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5월 28일	목사 (신성호목사)	• 사랑 배울 교육의 길 • 삶 속의 나의 길	단강교회
6월 25일	목사 (정명목사)	• 비전 • 비전 성취를 위한 계획	은누리교회
7월 25일	작가	• 스탬프 동화 만들기 • 나의 창작 동화 만들기	무의교회 수양관(2박 3일)
8월 11일	경찰	• 인천지방 경찰청 탐방 • 경찰의 역할	인천경찰청
9월 24일	파이프 오르가니스트 (유용인교수)	•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 독일 유학기	하늘꿈교회
10월 22일	군인	• 육군 부사관 학교 방문&체험 • 군인의 역할	육군 부사관학교
11월 19일	화가(김병주화가)	• 미술관 관람 • 작품 설명 • 스케치	SPERO GALLERY
1월 5일	초등학교 선생님 (장병윤&신민경 선생님)	•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 선생님의 수업 준비	초등학교
1월 19일	변호사(김명철변호사)	• 재판 현장 관람 • 변호사의 역할과 방법	인천지방법원
2월 18일	미술사(안근영교수)	• 미술쇼 관람 • 미술사의 진로	영온교회

1) 기간 : 4월 23일(토) ~ 2월 18일(토)
 2) 대상 : 초등학생(선착순 25명)
 3) 문의 : 영온교회 이소윤목사 010-3335-8013 (운남동 446-1) 기 독 교 영온교회 교회학교
 대한감리회

문화탐험 프로그램 안내

일시	프로그램	교육내용	교육명
4/12	녹청자박물관 (경서동)	○도자기, 녹청자 강의 ○박물관 전시관 람 ○도자기 장식문양을 이용한 손수건/가방 장식/도자기 체험	우리 고장의 문화 재와 함께 하는 인 문학여행
4/26	해명단청박물관 (신포동)	○전통문양 단청 교육 ○박물관 전시 관 람 ○오방색을 이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천연 비누로 만드 는 단청이야기
5/3	경인 아라뱃길 마라톤	○경인 아라뱃길 문화시설체험 ○ 단체게임과 마라톤	건강한 육체를 위 한 운동
5/10	한국만화박물관 (부천)	○한국 만화의 역사 ○도서 관람 ○ 만화 캐릭터 소품 체험	만화의 예술적 가 치 체험
5/17	서울 숲 (근충 식물원)	○서울 숲 생태 탐방 ○생태 식물 관람	도심 속에 생태계 여행
5/24	검단선사박물관 (검단)	○선사 시대의 유적 관람 ○펜석기, 간석기 유형모형 체험	석기 발굴 체험
5/31	백운산 등산 (영종)	○고장의 백운산 등산 ○등산을 통한 건강한 생활	고장의 백운산 등 산
6/7	갯벌체험 (을왕리)	○갯벌의 생태 ○갯벌 체험과 조개캐기	갯벌 체험
6/14	인천어린이과학관 (방축동)	○ 빛 색깔 과학놀이 ○ 빛 터널, 홀로그램, 눈꽃놀이체험	빛 색깔 과학놀이 체험전
6/21	공항철도견학 (인천공항)	○공항 철도의 원리 ○공항의 역할과 견학	공항과 철도의 견 학

일시	프로그램	교육내용
9/27	수제 쿠키 만들기	○ 돼지박물관 책 나눔 ○ 동물 쿠키 만들기
10/4	왜지 박물관 (경기도 이천)	○ 돼지가 있는 교실 ○ 소시지 만들기 ○ 돼지탈, 돼지 비누 만들기
10/11	손 염색을 이용한 가방 만들기 (강사초청)	○ 패브릭 물감을 이용한 가방 염색 ○ 스텐실, 지우개 도색을 이용한 나만의 가방
10/18	석모도	○ 가을 섬 여행 ○ 그리기
10/25	나의 궁 만들기 (클레이)	○ 궁은 무엇일까? ○ 나만의 궁 클레이로 제작
11/1	경복궁	○ 지하철 타고 경복궁 탐방 ○ 가을 단풍 놀이
11/8	북 토크, 책 갈피 만들기 (강사초청)	○ 북 토크 ○ 낙엽, 단풍잎 책갈피 만들기
11/15	계양산 등산	○ 계양산 등산
11/22	뮤지컬 관람 (대학로)	○ 공연관람

일시	프로그램	교육내용
11/29	수료파티	○ 수료식 ○ 떡볶이, 피자파티 ○ 레크레이션



온 교우가 전도의 열정으로 매진하는 강서지방 아름다운교회 전도이야기

아름다운 교회(담임목사-김문철목사,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는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과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임대아파트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주변의 작은 교회보다 보편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대형교회(예원장로교회, 경향장로교회 등)로 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본 교회는 자체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상가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견상으로 별로 관심이 집중되지 못한 형편입니다. 교인들의 구성요소역시 50-70대로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등록된 교인들에게 어린이 자녀가 거의 없어서 교회학교가 매우 열악했었습니다.

처음 교회학교(유치부/어린이부 포함) 어린이 인원수는 겨우 2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하겠다는 교우도 별로 없었는데,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께서서는 본인도 영혼 사랑과 열정이 많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우 가운데 같은 뜻을 가지신 50대 집사님을 어린이부 부장으로 세우셨고, 부장 선생님 역시 본인과 함께 전도에 힘쓸 교사 8명을 세워 각 달란트에 맞도록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꼼꼼한 성격의 총무 선생님과 어린이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해 줄 레크레이션 선생님, 신나데 노래하는 찬양 율동 선생님, 기록과 재정을 담당할 서기, 회계 선생님 등으로 나누어 상호간에 기쁨과 믿음, 그리고 보람이 있도록 직분을 분담하였습니다.

매주 아침 교사기도회와 예배 후 마침기도회를 통하여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구체적인 비전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정기적인 전도를 정해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학교가 있음을 알렸고, 단 한명이라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축하해주고, 선물과 함께 시상하였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 때에는 부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한 달 동안 작정하여 새벽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친구를 전도한 어린이에게는 반드시 시상하며 격려해 주었는데 비용은 어린이부 부장님께서 본인의 사비로 섬기면서 사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부모 없이 혼자 전도 되어온 정찬영 어린이(남, 초6학년)가 7명을 전도해 왔으며, 이정훈 어린이(남, 초6학년)는 5명을 전도해 왔으며, 박찬호 어린이(남, 초6학년)가 4명을 전

도해 왔으며, 정재윤 어린이(남, 초6학년)는 3명을 전도해 와서 전도 시작한 지 10여 개월 만에 어린이부가 30명이 넘었습니다. 숫자적인 통계로 말한다면 2,000%가 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부에서부터 시작한 전도의 열정이 전 교우들에게로 확산되어 토요전도와 개인 전도를 통해 유치부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10개월 만에 유치부가 12명이 되는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월별 시상 및 전도파티를 열어 맛있는 간식을 나누며, 어린이들의 전도를 도모하고, 한달 동안 4개의 주보를 가지고온 어린이들에게 행운권 시상을 하는 등 격려와 칭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신나는 찬양율동과 함께 새로 나온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도자를 어린이로 세우는 일입니다. 기도를 맡은 어린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기도문을 집에서 써와 기도하게 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헌금위원 역시 전도된 어린이들 위주로 참여시켜 교회학교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 후에는 반드시 그날의 설교 본문 말씀과 접목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져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전도된 어린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연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레크레이션 시간 후 간식시간 때에는 말씀을 암송한 후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영의 양식이 먼저임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명에서 출발하였던 교회학교가 유치부는 15명으로, 초등부는 30명으로 성장하였다. 지금도 매주 1-2명의 어린이가 전도되어 나오는 실정으로 지역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린이 전도로 크게 부흥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어린이부만 아니라 장년부까지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교회 교사나 교우들이 만나게 해달라고 협력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교사와 어린이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총력 전도하고 있습니다.

친구초청주일로 부흥하는 만수중앙교회 초등부 전도이야기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잔치를 진행하고, 부흥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짝 이벤트로만 끝날 것인가, 꾸준한 연결고리로 이어 나가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 여러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만수중앙 교회학교는 후자의 연결고리 행사라는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만수중앙교회 교회학교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만수중앙교회 교회학교 특징

- 꾸준한 학교 전도 : 풀타임 사역자 개인전도, 교사 전도팀 전도
- 매달 1회 친구초청주일 및 총동원주일
- 상, 하반기 전도축제 (연 2회)
- 매달 1회 토요 문화 놀이 프로그램 (정착중)
- 반별 포인트 또는 개인 스티커(달란트) 점수제도

1. 교회 알리기 (꾸준한 학교 앞 전도)

교회 주변의 초등학교들을 탐색하여 꾸준히 전도할 수 있는 곳을 정합니다. 만수중앙교회는 두 군데 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보면 타 교회의 전도하는 모습도 가끔 봅니다. 한 번씩 보이는 교회들의 전도는 참 화려합니다. 인형탈을 쓰고,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오고 여러 눈에 띄는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며칠 못 본다는 것입니다.

만수중앙교회는 2011년부터 김성기목사님(당시 교육목사, 2010-2014초)과 여자 풀타임 사역자를 두어 매일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전도방법은 간단합니다. 환한 미소와 아이들과 인사할 수 있는 손이 있으면 됩니다. 매일 학교 앞을 찾아가 반갑게 인사하고 하이파이브와 같은 간단한 스킨십으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도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이쥬, 멘토스와 같은 캔디류를 나눠주는 전통적인 전도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평범한 전도방법이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인 접근이 200명이 넘는 많은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같이 할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전도용품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학교로, 아이들이 있는 현장을 나가지 못한다면 부흥과는 반대의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화려하고 많은 것을 받는 것 보다 꾸준히 자신을 반갑게 찾아주는 한 사람, 연결고리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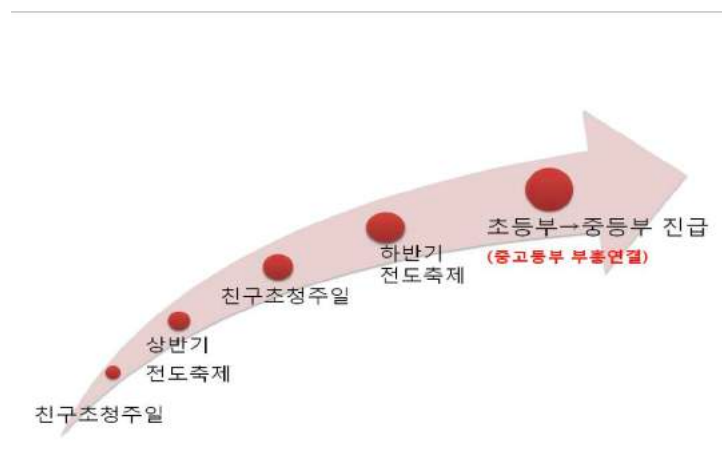


2. 교회로 초대하기 (친구초청주일, 총동원주일, 전도축제)

꾸준히 학교전도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찾아오도록 하고 싶다면 잔치행사를 하면 됩니다. 만수중앙교회는 매달 한 번씩 친구초청주일 및 총동원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전도축제 행사를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라고 해서 크게 부담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선물과 간식만으로 100명의 어린이가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꾸준한 학교전도로 관계형성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축제와 친구초청잔치로 교회를 찾아온 어린이가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교회 왔던 어린이를 학교 전도에서 계속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어린이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매달 초청잔치에 초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어린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등부가 되어 중고등부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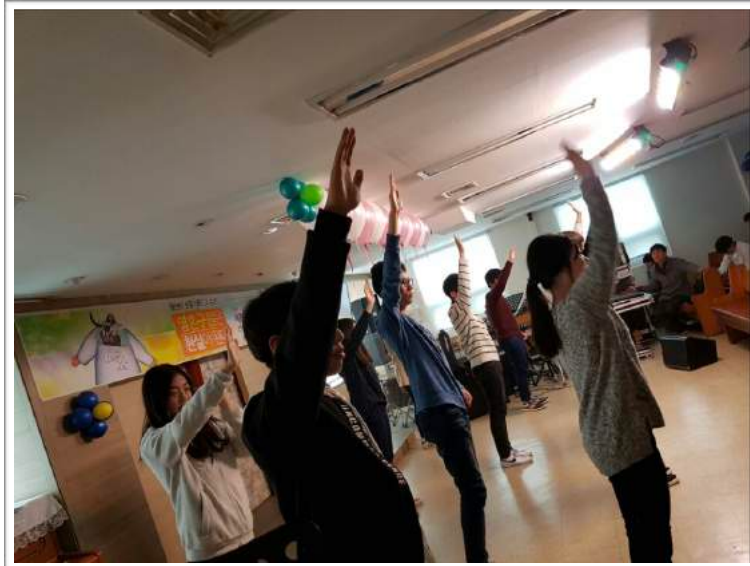
[다음 화살표는 위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친구초청주일은 매달 하는 행사로 교사와 사역자에게 너무 부담이 가게 되면 지칩니다. 그래서 꼭 간식을 직접 만들거나 어렵게 구하지 않고, 교회 가까이에 있는 분식집들 또는 교인 가게를 이용하여 1인당

1,000원 정도의 간식을 구매합니다. 예를 들어 소세지빵, 피자1조각, 컵떡볶이, 컵빙수 등 선정하여 간단한 전도지를 만들어 학교전도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전도지 뒷면에 전도하는 사역자의 이름과 번호 또는 교사의 이름과 번호를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새친구와 전도한 친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유난히 인기가 많은 간식이 있다면 양코르로 똑같은 간식을 다음 달에 또 준비해도 관계없습니다. 한달에 한번이기 때문에 질리는 정도가 낮습니다.



매달 친구초청주일에 간식만 먹으러 오는 아이들의 정착을 높이려면 전도축제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간식과 선물 그 이상의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 강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참여가 가능한 놀이마당의 장을 열어주는 등에 친구초청주일과는 차별을 둔 특별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잔치 때마다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많아지면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에 어린이들이 떠들썩하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교회학교는 더 활발하게 되고, 교사들도 기존의 어린이들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흥이 가져다주는 커다란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3. 매달 1회 토요 문화 놀이 프로그램

쉬는 날은 많아지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없으면 스스로 놀 줄을 모릅니다. 그러한 아이들과 매달 한 번 “행복한 토요일”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기 시작한지가 6개월째 되어갑니다. 딱히 어떠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함께 모여서 술래잡기만 해도 아이들은 행복한 토요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장기결석자들도 포함되고, 전도대상자까지 기존의 어린이들이 한 명씩 데리고 나오니 자연스러운 부흥의 연결고리가 또 이어집니다.

4. 반별 포인트 또는 개인 스티커(달란트) 점수제도

칭찬은 고래도 꼬끼리도 춤추게 합니다. 이러한 말에는 칭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전도하기 위해 힘쓰는 어린이들에게 칭찬은 꼭 필요한 상입니다. 그

것을 스티커로 하든, 달란트로 하든, 팀으로 하든지 교회 사정에 맞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힘껏 칭찬을 해야 합니다. 만수중앙교회에서는 고학년은 반별 포인트를 모아 소품을 보내주는 방법과 저학년은 개인 달란트 스티커를 모아 달란트 시장을 열어서 칭찬하는 방법으로 상을 주고 있습니다.

만수중앙교회에서 찾은 연결고리는 꾸준한 학교전도를 통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초청잔치, 전도축제 등 다양한 행사(토요행사, 축구전도 등)로 부흥의 힘을 실어주며 튼튼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축구선교로 부흥하는 성북지방 재미있는 교회

1. 교회위치

재미있는 교회는 2011년 4월 17일 성북구 장위동 238-82, 지하에 개척하였습니다. 개척 이후 2013년 7월 만 2년 만에 2층 상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장위동 74-222)

2. 교회주변 환경

재미있는교회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500m 떨어진 곳에 위치 해 있습니다. 교회주변 환경으로는 현재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왕복 4차선 대로변에 있으며 장위시장이 근처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한 부모, 조손 등 결손가정이 많고, 늦게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가 많아 자녀들이 잘 보호되지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교회학교 운영의 특징

1) 재미있는교회는 결손가정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하자는 설립취지를 갖고 시작하여 위기를 맞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잦있는 교회는 이름처럼 재미있는교회를 만들어 밖으로 나가 전도하지 않아도 불신자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매력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들

① 속회대회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속회를 구성하여 헌신된 성인 성도들이 속회지도자가 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속회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회대회에는 간단한 게임, 스포츠, 공동체 놀이 등 다양한 대회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재미있는 교회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한 좋은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속

회대회 결산을 통해 순위에 따른 차등 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속회, 속장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스포츠선교



하나 되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을 통해 한 팀을 이루고 활동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를 통해 한 팀이 되고, 선수로 뛰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참여해 매니저, 응원단으로 함께 하는 일입니다. 전국 어린이축구대회 3연패, 총 4회 우승, 서울연회어린이축구대회 5



연패 등 좋은 성적을 많이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회가 끝난 이후 함께 나누는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지방대회 우승을 통해 연회대회에 진출했고 연회대회 우승을 통해 전국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자주 생기니 함께 식사를 나눌 기회도 자주 생기게 되어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③ 가족 같은 교회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한번쯤 사춘기를 경험합니다. 그 중 강도가 심한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마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맞이한 청소년들을 위해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기분전환의 시간을 갖는 활동을 즐겨 했습니다.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운 아이들은 교회를 집처럼 생각해 모여 가족과 같이 지내고 있고, 밤이고 새벽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 했습니다.

④ 정성을 담은 식사준비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점심식사 준비가 어렵습니다. 재미있는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각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 준비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햄버거, 밥버거, 도시락, 피자 등 준비한 식사보다 더 인기있는 점심메뉴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⑤ 위기는 기회

항상 밝은 모습의 아이가 언젠가부터 계속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께서 암이 발병하셨는데 수술비가 없어 힘들어 한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두가 다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여기저기 도움요청을 하여 어렵게 수술비용을 모아 전달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 행복해지는 순간이었고, 이 아이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주축멤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4. 교회학교 사역에 있어서의 한계점

1) 비전교회에서는 헌신된 사역자가 부족합니다.

늘 기도제목 중의 하나는 사역자를 보내 달라는 기도입니다. 딱 한명만 더 같이 준비 할 수 있다면,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을 맡아줄 누군가가 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준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인원이 늘어나도 헌신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나니 재정적인 부분이 힘들어 더 이상 전도하기도 부담스럽고 새로운 사역을 계획, 개발하기도 힘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교회라도 진급을 위해 서리 전도사들을 동역자로 함께 할 수(작은교회 소속으로 진급이 가능하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 향 후 교회학교 비전

교회학교가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맑은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외로움과 아픔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이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기가 어려울 뿐 그들은 여전히 전도 되어야 하고, 사랑 받아야 하는 아이들일 뿐입니다.



눈을 낮추고,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아이들을 위해 양보한다면 그들도 교회가 짝 막히고 지겹고 가기 싫은 곳이 아닌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 한 순간도 내 실수를 통해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행복을 창조하는 곳으로,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는 곳으로 잘 가꾸어 놓는다면 딱히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학교는 그들의 친구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재미있는교회는 올해로 창립 후 7년 만에 불신자였던 어린이 15명이 청년이 되는 큰 감동을 맞이하였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성인 불신자 10년 전도하는 것보다 어린이, 청소년 전도해 10년 양육 하는게 더

빠른 교회성장의 길입니다. 많이 안아주세요. 아낌없이 투자해주세요. 교회학교는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재미있는교회 간증사례

- 이 산 -

저희 재미있는교회는 축구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감독회장기 감리교 전국 어린이 축구대회에서도 우승해서 전국 어린이 축구대회 3연속 우승을 달성하고 우승기를 영구소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에도 처음 시작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축구대회를 나가야하는데 사람이 모자라기도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채워야 했고, 친구들을 전도해 와야 한다는 아빠의 잔소리도 그만 듣고 싶어서 주변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축구를 배우기 위해 먼 곳까지 학교를 다니다보니 친구들을 전도할 수가 없었지만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가족들, 친구들과 더 오랜시간을 보내고 싶어 축구부를 그만두고 집근처 중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방과후에는 게임도 함께 즐기며 더 많은 친구들과 친해 질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친해진 뒤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이름이 독특하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교회!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에 모이면 교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 놓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친한 친구들은 거의 모두가 재미있는교회를 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지 않겠냐는 질문에 거의 거절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초청하고 나면 전날 전화통화를 합니다. 혹시라도 늦잠을 잘 것 같은 친구들은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도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축구 하러 운동장으로 올라갑니다. 축구경기를 할때도 팀을 비슷비슷하게 나누어서 잘 못하는 친구들도 함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잘 못해도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함께 즐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교회가 진짜 재미있다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늘 함께 축구를 하던 친구들이 우르르 와서 교회에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잘 나오던 친구들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보고 이번 주에는 어디서 만나서 꼭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 시간이 부족해서 아빠가 차량운행을 못가는 동네에 사는 친구들은 집 근처까지 데리러가서 같이 걸어서 교회에 갑니다.

그 동안 전도한 인원을 세어보니 52명을 전도했고 그 중 35명이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교회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한명씩 돌아가면서 대표로 기도하고 밥

을 먹는 등 학교 내에 재미있는교회의 모임이 생길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의 축구대회는 거의 저희 교회무리들이 담당하고 있는 등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안에서 저희 교회를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친구들을 전도하기위해 시간 날때마다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또, 교회에 오늘 발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항상 마중을 나가서 함께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교회가 새로운 친구들에게 늘 가고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뜨거운 예배로 부흥하는 생명나무교회

1. 교회주변 환경

1) 교회위치

(1) 생명나무교회는 서울남연회 송파지방에 소속한 교회입니다

(2) 교회 주변 환경

생명나무교회는 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교회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학교 앞 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2. 교회학교 운영의 특징

1) 중심 사역

생명나무교회에서 2012-2016년 말까지 아동부 사역을 맡아온 전임 전도사(최민)를 통해 아동부가 부흥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5년 간 아동부 사역과 동일한 방향으로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동부 사역들은 해마다 초점이 바뀌었으며, 올해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찬양과 말씀, 기도 외에 성경학교 등 행사를 통해 예수님과 친해지도록 하는데 계속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들

2017년 처음 아동부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동부 전임 전도사의 사역을 이어서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 송으로 암송과 찬양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말씀 챗트를 통해 말씀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그에 따른 행사나 기타 사진 첨부



3. 교회학교 사역에 있어서의 한계점

저희 교회 특성상 아동부만의 독자적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어서 아동부 어린이들이 예배 후 모임과 교제의 시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4. 향후 교회학교 비전

아동부 어린이들이 이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학교의 비전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여 부흥하는 보리떡교회

1. 보리떡교회는 2010년 5월 30일, 지역복음화와 차세대 양육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개척 설립되었습니다.

2. 교회주변 환경

1) 보리떡교회는 서울연희 성동광진지방 내 속해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2) 교회주변 상황

보리떡교회는 아파트와 일반 주택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과 사무실이 혼재된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가 많고 교회 근방에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로 비유되는

서울 숲과 한강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친화적인 삶의 여유를 즐기고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 복음전도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교회학교 운영의 특징

1) 교회학교의 사역 핵심 크게 세 가지

- 첫째, 기본기에 충실한 영성생활을 통한 부흥
- 둘째, 관심사 중심의 활동을 통한 부흥
- 셋째, 특색화된 전도를 통한 부흥

2) 구체적인 사례들

첫째, 기본기에 충실한 영성생활을 통한 부흥

① 매월 첫 주마다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이를 통해 어린 학생들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지도를 받으며, 다음세대들을 향한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후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어른 성도들을 1:1로 연결해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② 기드온의 300용사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능동적인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예시 : 어린이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성경 퍼즐, 1분 기도, 기도 노트, 우리 반 기도 마일리지, 베프전도(베스트 프렌드 전도), 전도 사다리, 디모데 섬김이 등

둘째, 관심사 중심의 활동을 통한 부흥

① 개척 초기 어린이 축구부를 조직하고 지방 대회에 참석하여 2011년에 3위, 2012년에는 우승을 차지하였다. 축구부를 중심으로 50여명의 학생들이 교회학교에 출석하며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② 어린이들의 관심 및 재능에 따라 음악영역(드럼, 기타, 바이올린) 미술영역(캘리그래피, pop) 체육영역(축구, 탁구, 힙합댄스)으로 나누어 소질을 계발할 뿐만 아니라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리떡교회는 특색화된 전도방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 전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문 앞 매일 전도; 전도대원들이 하교 시간에 맞추어 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합니다. 이 때는 선물이나 전도지를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들

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여 친근감을 표시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건강한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② 계절별 맞춤형 전도; 계절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전도 방법

새 학기에는 교육관에 다양한 놀거리(보드게임, 다트, 미니탁구대 등)를 준비하고 새로운 친구를 초청해서 즐거운 게임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에 대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해 줍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6월부터 7월까지의 팔빙수 전도를 통해 학생들이 교회에 방문하도록 유도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부침개를 나누어 먹으면서 복음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겨울에는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야외 프로그램에 친구들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눈썰매 등)

③ 학기 중 전도

- 기드온의 300용사 프로젝트 중 베프데이(BF DAY)전도를 통해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씩 초대하여 먹거리 파티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전도 사다리는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반별 전도 목표를 향해 단계별로 성취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반별로 사다리의 수가 다를 수 있다)

3) 행사 및 기타 사진

*온 세대 예배 모습



* 팔빙수 전도와 여름성경학교



4. 교회학교 사역의 한계점

첫째, 상가교회의 구조적 한계

상가교회는 단독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시행하거나 좁은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력의 한계

작은 교회는 헌신과 봉사에 앞장 설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서너 가지의 사역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선교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섬길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인 것입니다.

셋째, 시간의 부족이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수업뿐만 아니라 각종 학원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인 여가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시간마저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지극히 선택적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른보다 더 바쁜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에 충실하면서도 신앙교육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5. 향후 교회학교 비전

저희는 교회학교 비전으로 전문화된 교회학교 교회를 독립적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학교가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부속기관의 틀에서 벗어나 교회교육 전문목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학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발달단계에 따라 연령층별 신앙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시행되는 다음세대 교회학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학교는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교회출석에 만족하면서 프로그램만 소비하는 모습으로 전락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식과 자세로는 성공주의를 신봉하는 세속적 교육의 폭압에서 시달리고 있는 다음세대를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다음 세대를 깨워 시대와 역사를 책임지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강인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성교육, 인성(성품)교육, 지성교육, 사회성교육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고 익힐 수 없는 구별된 성화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된 공간 확보,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 학부모들의 인식변화 등이 이루어지길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독서목회로 사람을 세우는 부산 샘터교회

1. 교회역사

샘터교회는 2000년 9월 4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각공원로27번길 12번지(대연동 565-7)에 개척 설립되었습니다.

2. 교회주변 환경

1) 교회위치

(1) 샘터교회는 삼남연회 부산남지방에 소속되어 있으며 개척 당시에는 부산동지방 소속이었으나 2015년 부산지역의 지방이 분할조정 되어서 현재는 부산남지방 소속입니다.

(2) 교회 주변 환경

샘터교회 주변에는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부산예술회관 등 부산광역시의 주요 문화시설과 유엔기념공원, 평화공원, 조각공원 등 테마공원과 대연수목원이 있고, 초·중·고·대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교육시설 집중 지역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기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유엔평화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3. 교회학교 운영의 특징

1) 중점 사역

- (1) 교육과 문화사역을 중심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다음 세대) 육성
- (2) 파라처치(Para-Church)를 통한 교육선교 - 샘터교육문화원, 샘터꿈의도서관

2) 사례

(1) 샘터교육문화원을 통한 교육문화선교

- ① 유럽비전트립(기독교문화역사탐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또는 여름방학 기간 중 15일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의 기독교 문화역사 탐방을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5-6개월 전에 모집하여 철저한 준비학습을 한 후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12회 차를 준비 하고 있으며 평균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여행 중에는 주요 기독교 유적지와 인물, 박물관, 미술관을 돌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계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예술에 관한 학습, 비전학습을 통한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② 희망아시아 프로젝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8-10일 동안 아시아 지역에 봉사활동 및 공정여행을 합니다. 4-5개월 준비하여 도서관 및 희망학교를 설립하며, 한국의 전통 놀이 체험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체험 중심의 활동프로그램으로 교

류합니다. 참여자들이 자발성, 자율성, 협동심을 통해 아시아 공동체 의식과 타문화와 역사를 이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 실시했으며 17-20명의 참여했습니다. 2013년 캄보디아 프놈펜 작은도서관 설립, 2015년 말레이시아 바자우족을 위한 희망학교설립, 2015년 말레이시아 희망학교 증축과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였습니다.

(3) 샘터 꿈의도서관을 통한 전인적 교육프로그램

① 설립과 운영

가. 설립: 2001년 7월 7일, 건물 1층 156㎡에 2500여권 책으로 샘터교회가 설립

나. 운영: 샘터교회가 주관하고 운영위원회 통해 운영됩니다. 관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실무자로 봉사하며, 도서열람 및 대여, 다양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람은 무료, 대여회원은 회원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다. 개관은 화~토요일 오후2시~6시, 자원봉사자들이 2시간씩 주 1회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서는 16,0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교육문화 프로그램

가. 독서교육 프로그램: 전인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샘터 독서캠프: 아동을 대상으로 여름/겨울 방학 중 3일간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주제별 독서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아6세~초등2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독서캠프, 초등3~6학년을 대상으로 꿈나무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회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참여자 중 50%는 비기독교인과 타종교인의 자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 샘터 꿈의학교: 학기 중 16주간동안 주1회 90분의 모듈별 독서학습을 기반으로 전인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6세~초등6학년까지 학년별로 최대 8명으로 모듈을 구성하여 5명의 전문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 청소년독서비전스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요일에 활동 중심의 독서학습 이루어지며, 학기 중 탐방 및 체험학습, 비전학습(명사 초청 강연)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기를 마친 후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내비전캠프 또는 독서여행을 합니다.

라)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개발한 독서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독서기술을 개발하여 역량을 키우는 독서능력개발과정(10주), 독서지도를 위한 독서코칭과정(10주), 독서코칭 실습을 하는 독서코칭전문과정(12주)을 1년 2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비롯하여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 학교 교사, 독서지도사, 방과후 학교 교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산 뿐 아니라 인천, 서울, 창원, 대구, 울산 등 주요도시에서 요청에 따라 독서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마)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및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신체활동, 자기계발활동, 봉사활동, 탐험활동) 들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여명이 금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 독서문화 프로그램

가) 책과 만나는 산책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회 인근 공원을 이용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간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 장미공원, 평화공원, 도서관에 주제별 도서부스를 설치하고 독서를 한 후 간단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열린 공간에서 가족들이 함께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코너를 순회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게 된다. 매회 400~7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도서관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건전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나) 행복한 공원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교회 인근에 있는 공원(평화공원)에서 3월~6월, 9월~11월, 토요일 오후2:00~4:00까지 2시간동안 이동도서관을 운영합니다. 공원에 문화시설이 없으므로 공원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테이블과 50여권의 도서를 펼쳐 놓고 2시간 정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자원봉사 터전: 샘터꿈의도서관이 부산청소년진흥센터 산하 청소년자원봉사 터전, 창의적 체험활동 터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교회 청소년부 학생은 물론 지역 학생들에게 봉사교육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샘터교회 청소년들은 주일 예배 후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와 지역봉사를 매 주마다 하고 있으며, 1년 봉사활동 50시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교회학교 사역에 있어서의 한계점

1) 지도력 요인: 교회학교 교사의 교육적 인식의 교사양육의 문제가 많다.

- (1) 시간적인 제약으로 교사교육과 활동에 장애
- (2) 교사의 정체성과 교육에 대한 인식이 미비
- (3) 교사의 세상읽기, 상황읽기, 학생읽기 등이 미약
- (4) 성장기의 경험과 능동적 역량개발의 의지 부족

2) 환경적 요인: 교회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교회학교 운영에 장애요인

- (1) 미디어와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회의 교육적 환경이 미비
- (2) 교회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시간적 제약
- (3)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3) 심리적 요인

- (1) 과중한 학업과 입시중심의 교육환경으로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부담감
- (2) 참석율과 성과에 대한 불안감
- (3) 교회의 외적, 물리적 상황에 대한 내적인 자신감 결핍

5. 향 후 교회학교 비전

- 1) 교회의 교육전문 지도력을 육성할 것 - 교사, 교육사, 교육목회자의 공급과 역량개발에 교회와 감리교본부 교육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 2)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회교육 콘텐츠 개발 - 교회 간, 교단 간, 지역 공동체 간에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 3) 교회교육이 '교인을 양성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적 교육'과 '지구 시민 교육'을 할 것 -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사람,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공부방(꿈방)으로 지역 아동과 함께 하는 서산 벤엘교회

1. 서산 벤엘교회는 1975년 9월에 개척하였습니다. 교회 위치는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리입니다. 서산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저는 2006년 12월에 6대 담임자로 부임했습니다. 부임 후 땅 주인이 찾아왔었습니다. “누구 허락 받고 이곳에 들어왔냐?”며 따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가 사용하는 땅이 불법 점유였던 것입니다. 30년 전에 땅 주인이 구두로 허락해 주었기에 건축했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에서 매입하지 못한 상태로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어 불법점유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 5월 300평

의 땅을 분할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건축의 기회를 주셔서 새 성전 건축하고 2015년 8월 입당하였습니다.

2. 교회주변 환경

서산벤엘교회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농어촌이 그러하듯 마을 주민은 6~70대가 대부분입니다. 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1개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전교생은 57명으로 매우 작은 학교입니다. 그나마 중학교는 시내에서 들어와 전교생이 148명입니다.

3. 교회학교 운영의 특징

- 1) 조손가정, 편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대부분이기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합니다.
- 2)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나 방과 후인 4시부터는 학습 및 생활 지도 등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 3) 교회에서 공부놀이방인 '수요 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중교회학교이기도 합니다.
- 4) 꿈방의 교사는 목회자 부부 외에 70대의 어르신 교사 4명입니다. 특히 4명의 교사는 요양차 이곳으로 내려왔다가 회복이 되어 섬겨주고 있습니다.
- 5) 그 외 평일에도 피아노 레슨, 학습지도 등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들

(1) 꿈방

- ① 꿈방 이전 (2007~2014년): 피아노 레슨, 개인 학습 지도
- ② 꿈방 교사 모집(2015년 3월): 6명
- ③ 꿈방 개설(2015년 4월): 매주 수요일 오후 4~6시, 놀이공부방(주중교회학교)
- ③ 어린이 주일예배 개설 (2016년 10월 9일): 꿈방으로 전도된 아이들 중 10여명 중심으로 어린이주일예배로 개설
- ④ 연 2회 달란트 시장 실시
- ⑤ 교회학교 인원 변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명	13명	28명	28명

3) 행사와 활동 사진

	
꿈방 교사	공부방
	
놀이활동 (단체줄넘기)	체험활동 (화분 만들기)
	
달란트 시장	예배

4. 교회학교 사역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 1) 가정에서의 신앙적 지원이 없습니다.
- 2) 간식 준비, 프로그램 운영, 분반 공부까지 하기 에는 수적으로 부족합니다.
- 3) 활동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린이들만의 학습 및 놀이 공간이 없습니다.
- 4)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5. 향 후 교회학교 비전

- 1) 신앙 훈련: 성경구절 외우기, 예배 훈련, 기도훈련 등을 통해 신앙 체험을 갖게 합니다.

- 2) 비전 찾기: 꿈찾기 코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찾아 줍니다.
- 3)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실시: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 계발하도록 돕습니다.
- 4) 비전 2050: 2050년이 팔봉면 호리의 가정마다 온전히 회복되어 '결손가정 제로'를 이루는 것입니다.
- 5) 교육문화센터 건축: 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도서관, 학습방, 공연장, 전시실 등의 다목적 센터 건축하는 것입니다.

스쿨처치 운동을 하는 해남 새롬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소중한 교회의 사역이며 지역의 학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소중한 공간이며 기독 교사와 기독 학생들의 신앙 훈련의 장입니다. 이 소중한 공간과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학교내 예배자를 세우는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해남지역의 중고등학교 기독 학생들이 스쿨처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나 지도자와 후원자가 없어 어려운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스쿨처치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예배인도의 어려움을 느끼던 중 친구들의 요청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남공업고등학교 스쿨처치의 설교자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간식과 주보를 준비하여 스쿨처치의 후원교회가 되었으며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입학식에 참여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쿨처치의 금요 예배가 활성화 되면서 지금은 40여명의 친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친구들이 찬양단을 조직하여 함께하고 있으며 기독교 동아리가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13명의 친구들은 수요일마다 두시간 동안 성경공부반이 구성 되어 저는 금요일에 설교자와 수요일 성경공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긴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의 스쿨처치 운동이 지역 기독학생들의 신앙 운동으로 자리해 가고 있으며 분기별 연합 집회, 방학 기간을 통한 수련회와 찬양집회 등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는 해남고등학교 스쿨처치와 6월부터는 해남중학교 스쿨처치의 설교자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스쿨처치 친구들과 다양한 교제를 하며 해남에서의 기독학생운동은 새로운 신앙운동

으로 전개되고 있고 졸업생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며 기독청년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교 스쿨처치 운동의 또 다른 축은 기독교사입니다. 해남지역의 스쿨처치 운동은 교내 예배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2017년 6월부터 해남 기독교사 신우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우리 새롬교회에서 한달에 두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학생들을 위한 대화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귀한 교사들의 기도와 열심은 다음세대를 세우는 소중한 자산으로 그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해남새롬교회는 해남의 지역교회로서 지역내의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드러지는 예배는 믿음의 친구들이 학교내 예배자로 서가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예배와 성경공부에 함께 하여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쿨처치운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도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소중한 여정이며 100만 전도 운동과 같은 감리교회 전도운동의 소중한 전략입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전도 사역자 세우기

◇ 교회마다 교사들이 맞벌이로 인해 전도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교회학교 가약화되고 있다. 부서별로 1명에서 2명 정도 현장 전도할 수 있는 교사를 찾아 학교 앞 전도와 놀이터 전도를 꾸준히 전도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담 사역자를 두어 매일 전도하면 더 많은 질적,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EX) 만수중앙감리교회(담임 황규호목사)는 아동부, 중고등부에 전담 전도사와 전도교사 2 명씩을 세워 활발한 학교 앞 전도를 통해 풍성한 부흥을 이루어 가고 있다.

◇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전도자로 세우면 매일 친구들을 만나기에 전도 효과가 크다.

EX) 아름다운교회 (담임 김문철목사)는 전도된 어린이 5명이 친구 7명, 5명, 4명, 3명을 전도하여 아동부 3명에서 45명으로 2016년 부흥하여 교회학교살리기 감독회장 전도상을 수상하였다.

재미있는교회 (담임 이재은목사) 이산학생은 53명의 친구들을 꾸준히 전도하였다.

예수마음교회 (담임 김성기목사) 김기쁨청년은 친구 12명을 전도하였다,

◇ 시간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 원로장로들이 학교 앞 전도를 하면 효과가 있다.

EX) 로고스교회 (담임 전준구목사)는 정순옥할머니권사는 매일 학교 앞 전도를 하여 매년 100명 총 300명의 어린이, 학생들을 전도하고 있다.

대림교회 (담임 임준택목사)는 현대석원로장로는 매일 공원 놀이터에서 전도하여 70명의 어린이, 청소년을 전도하고 있다.

인천만나교회(담임 정기수목사)는 박용권원로장로는 1주일에 2번 파트전도사와 함께 가위 바위 보 전도를 하고 있다.

향연교회 (담임 이봉석목사)는 개척교회로 할머니권사와 담임목사가 일주일에 두 번 학교 앞 전도와 놀이터 전도를 시작하였다.

◇ 수련전도사, 파트전도사 들의 학교앞 전도와 토요전도로 부흥

EX) 마포중앙교회 (담임 유승훈목사)는 교회학교 부흥을 위하여 이승원 수련전도사에게 힘을 실어주어 학교 앞 전도, 축구전도로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다.

생명나무교회 (담임 이구영목사)는 최민 파트전도사가 학교 앞전도와 토요전도를 하여 매년 아동부 30%출석 부흥을 이루었다.



재미있는교회 이산학생과 전도된 친구들



로고스교회 매일학교 앞 전도하는 정순옥할머니 권사



만수중앙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 사역자 전도팀

1221운동이란?

일주일에 2번 학교 앞 전도를 하고 2달에 1번 친구초청예배를 하면 부흥합니다.

☆학교 앞 전도 요령

1. 학교 정문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 학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2. 지속적으로 만남으로 전도대상자들과 친해지면 교회초청 효과가 있습니다.
3. 교회 학생들이 전도하도록 전도 대상자를 연결해 줍니다.
4. 축구, 피구 등 취미별 동아리를 만들어 가면 좋습니다.
5.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통하여 마이썬, 막대사탕 등 먹을 것을 주면 친해지는 효과가 있고 분식 등을 1달에 2번 정도 사주면 효과가 큼니다.
6. 6학년, 중3, 고3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면 부서 부흥에 좋습니다.
7. 청년부에서 고등학교 전도를 같이 해주고, 중고등부에서 아동부 전도를 함께하면 부서 이동시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친구초청잔치 요령

1. 잔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달에 1번 또는 2달에 1번 초청잔치를 하면 학교 앞 전도, 놀이터전도로 친해진 전도대상자들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2. 홍보는 2주 이상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3.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교회창립일은 크게 잔치를 열고 나머지 달들은 예산이 1인 1천원 선에서 간식을 준비합니다.
4. 5분 간증자, 특별찬양을 준비하고 간식을 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5. 명함사이즈 크기로 일시, 장소, 행사내용을 담아 프린터로 출력하여 비용이 절감됩니다.
6. 교회학생들에게 친구들을 전도하도록 권면합니다.
7. 속장, 교회성도들도 생활전도로 지역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친구삼아 초청잔치에 함께 초청하여 주면 풍성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 EX) 대림교회 (담임 임준택목사)는 김성기목사의 교육담당 시절 학교 앞 전도와 매월 친구 초청예배로 아동부, 중고등부 4배 출석 부흥을 이루었고 그로인해 청년부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 진관교회 (담임 이현식목사)는 오주석수련전도사 시절 학교 앞 전도 1주일에 2번 2달에 1번 친구초청 예배로 중고등부 배가 출석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 ~ 안산광림교회 (담임 민경보목사)는 이준호파트전도사 시절 학교 앞 전도(학생임원, 전도사)와 매월 친구초청 문화예배로 중등부 매년 50% 출석부흥을 이루었습니다.
- ~ 예수마음교회 (담임 김성기목사)는 매 주 학교 앞 전도 2번과 2달에 1번 친구초청예배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 ~ 재미있는교회 (담임 이재은목사)는 학교 앞 전도, 축구전도, 친구초청예배로 개척 6년만에 중고등부 재적 120명 출석 60명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 ~ 만수중앙교회 (담임 황규호목사)는 교사 2명, 사역자 1명 씩 아동부, 중고등부에 전담 전도 사역자를 두어 부흥하고 있습니다.

토요전도와 스포츠전도

토요일전도는 주일 예배와 바로 연결되어 전도효과가 좋습니다. 토요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다양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친해져 전도합니다. 오후에는 길거리, 놀이터, 운동장,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 훌라후프, 줄넘기, 축구, 피구, 농구등을 통하여 지역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친해져 주일 교회 오도록 권면합니다.

평일 전도 활동을 못하는 교사들이 전도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전도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축구, 피구, 농구팀을 학년별로 만들어 이웃교회와 친선경기를 1달에 1번 가지면 많은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지방별로 감리사기 풋살, 피구, 농구등 스포츠선교를 활성화하면 시대적으로 교회부흥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영등포지방은 1년에 2번 풋살, 피구 대회를 통하여 교회학교 부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진관교회 부흥이야기

1. 교회의 역사

- 진관교회는 1967년 11월 12일 설립하여 금년(2017)에 50주년을 맞이하여, 3333 프로젝트로 3000명 예배공동체, 300명 헌신된 전도자, 30개 해외교회 건축, 3대 세우기(가정/다음세대/기독교문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교회주변 환경

1) 교회위치 - 서울연회 / 은평동지방

진관교회는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소속으로 은평뉴타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2) 교회주변상황

진관교회는 은평뉴타운내에 위치하여,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수려한 북한산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이 조성되면서 아파트 11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교회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3. 교회학교 운영의 특징

1) 표어 : 건강한 교회학교 행복한 초등부

진관교회 초등부는 1,2,3학년 그룹과 4,5,6학년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연령대에 수준에 맞추어서 예배와 각종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① 특별함이 아닌 성실한 평범함의 교회학교
- ② 변함은 없으나 변화를 지향하는 교회학교
- ③ 모범이 되는 성숙된 교사를 양육하는 교회학교

세 가지의 방향을 잡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영적이고, 양적인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

① 학생

㉠ 신입생 및 새친구 -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올라오는 아이들이 아직 부모에 의존하여 예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11,12월에 7세 명단과 사진을 미리 파악하여 게시판에 게시하고, 12월에는 초등부 초청장 및 선물(예배안내, 주보, 간식..)을 발송하고 유치부 광고시간에 1학년 친구들이 방문하여 7세 아이들을 직접 초대한다. 새친구인 경우는 새친구의 사진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모두가 친해질 수 있도록 돕고, 교역자가 학교로 찾아가 만남을 가짐으로써 빠른 적응을 하도록 도와준다.

㉡ 학교 앞 전도 - 학교 앞 전도를 나가기에 앞서 학생들과 미리 날짜를 조율하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등교할 때, 교역자와 학생들이 만나서 선물을 받고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학교에 들어가고, 하교할 때 다시 만나서 교역자와 함께 즐거운 놀이시간을 갖는다. 이때 같은 반 친구들을 데려와서 담당교역자와 만나서 복음제시 및 교제를 하고,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기도 하며, 장기결석자 학생들과 결석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

㉢ 행복(전도)축제 - 1년에 1번씩 행복축제 기간을 정하고, 1인 1명의 전도대상자를 정하여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4~6주 기간동안 기도하며 엽서, 선물, 초대 등의 정해진 일정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과 막연한 전도가 아닌 함께 하는 전도의 방법도 교육하고 영혼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행복축제 D-day에 친구를 초청하여 복음제시, 레크레이션, 파티를 열어준다.

㉣ 친구야놀자 - '친구야놀자'는 여름행사 전주 토요일에 기존의 학생들과 여름행사때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는 프로그램이다. 미니여름행사처럼 짧은 코너들을 만들어 놀이체험부스, 체험마당, 각종대회 및 간식시간을 갖고 여름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여름행사에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학생들에게도 여름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㉔ 제자훈련 - 1년 1회 실시하며 미리 공지하여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6~8주 기간 동안 교재를 통해서 기도, 예배, 교리, 말씀...훈련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배운다. 훈련을 통해서 전도와 헌신을 배우게 되고 마지막 주차는 현장학습으로 서울 근교에 있는 성지순례를 떠남으로 신앙을 위해 순교하신 선배들의 삶도 함께 배운다.

㉕ 그 외

㉔ 특별공과 : 1년 2번 교사가 아닌 교역자가 공과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교역자들의 친밀도를 높이고, 교사들에게도 공과교육법을 실제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㉕ 생일파티 : 한달에 한번씩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예배 후, 떡볶이와 튀김등을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대접하여 생일을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갖는다.

㉖ 달란트잔치 : 1년 2번씩 아이들의 출석, 요절, 전도, 예배성실도, 봉사와 헌신등을 기록하여 달란트 통장을 만들고 저축하고 모은 달란트로 문구, 완구, 음식등으로 교환한다.

㉗ 성찬새벽기도회 :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은 본교회에서 성찬새벽기도회로 정하여 드리고 있다.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서 성찬새벽기도회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수기도 시간이 있다. 그리고, 1년 개근(1회결석포함)한 학생들은 시상하여 놀이동산투어를 진행한다.

② 교사

㉔ 전체기도회 - 매월 첫째주 교회학교에 소속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월별 나눔 및 공지와 교사들의 생일축하와 교회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갖는다. 20~30분 사이의 짧은 시간이지만 각 부서 이야기를 짧게 듣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생일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㉕ 교사교육 - 년 2회 교사만을 위한 교육과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교사인 동시에 예배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주일1부(7시) or 2부(9시)를 드리지 않는 교사들은 부서예배가 아닌 성인예배를 드리게 하여 교사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교육한다.

㉖ 교사어워즈 - 연말에 오직 교사들을 위해서 저녁시간을 준비한다.

교사들을 위한 포토존, 각종 시상식을 갖는데 장기근속 교사들에게는 트로피와 상품으로 위로하고 교역자들의 특별공연, 학생들의 영상편지, 기념품, 저녁식사 시간을 갖고 한 해동안 교사들을 위로하고, 내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4. 교회학교 사역의 어려운 점

1) 학생들과 교사들의 시간부족

요즘 학생들은 하교 후에 학교 앞에 정차에 있는 학원승합차에 실려 학원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학생들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놀이터는 늘 비어있고, 토요일도 학원이 아니면 믿지 않는 가정들은 주 5일제의 영향으로 가족행사 및 여행으로 주일예배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뿐만아니라 교사들 역시 일상의 분주함으로 헌신과 희생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 교회교육의 퇴보

예전에는 교회교육이 사회교육에 비교해서 뒤쳐지지 않았는데, 지금의 현실에서는 교회 교육의 커리큘럼이 사회교육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쳐져 있습니다. 공과도 교재도 많이 뒤쳐져 있음을 현장에서는 많이 느껴진다. 그럼에 현장에서 교육함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사회교육을 앞서가기는 어렵겠지만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교재와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5. 진관교회 초등부는

2006년 진관교회 교회학교(통계표기준)는 유치부 26명, 초등부 42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7년 현재는 유치부 79명, 초등부 162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것에는 다른 교회 초등부와 비교해서 무언가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3배이상의 성장을 이룬 것은 전도의 남다른 탁월함이 있으신 이현식담임목사님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평범함, 변함은 없으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함으로서 학교 앞 전도와 학생들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학생들이 교회로 오면 흘러나가지

않도록 역시 최선을 다한다.

다음세대를 위해서는 말씀에 기초한 기본과 성실을 놓치지 않고, 이제 영성교육 뿐만이 아닌 인성교육도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영혼과 믿지 않는 영혼이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커리큘럼을 교단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서 침체되어가는 교회학교에서 찾아오는 교회학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관교회 교회학교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탁월한 특별함이 먼저가 아닌 성실한 평범함을 기초와 기본을 지키며 한 영혼을 향해 꾸준히 만나러 갈 것입니다.



친구야 놀자



달란트 잔치



교사 어워즈

